

동시에 비한 동요운률구성의 특성

윤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운률을 구성하고있는 기본성분은 흐름새와 박자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7페이지)

시에서 말소리의 음악적흐름인 운률은 음악의 곡조와 마찬가지로 박자와 흐름새로 이루어진다. 박자는 운률단위에 규칙적인 대응과 반복을 보장하여주고 흐름새는 운률에 다양한 굴곡과 굴림새를 보장하여준다.

동시에 비한 동요운률구성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운률의 박자가 단순하다는데 있다.

시의 운률형식은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에 의하여 규정되고 변화된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자유분방한 정서를 표현하는 운률의 박자와 단순하고 천진한 정서를 표현하는 운률의 박자가 같을수 없다. 즉 동시의 정서를 표현하는 운률의 박자가 다양하다면 동요의 정서를 표현하는 운률의 박자는 단순하다. 동요운률에서 박자의 단순성은 하나 또는 두가지 박자를 가지고 운률단위에 규칙적인 대응과 반복을 보장하여주는데서 나타난다.

동요는 동일한 음절수의 규칙적인 반복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이 없으면 운률도 없게 된다. 동요에서 동일한 음절수의 반복형태는 3.2조, 3.3조, 3.4조, 4.2조, 4.3조, 6.5조, 7.5조, 8.5조 등 일정한 몇가지 틀을 가지고있다.

동요에서는 이러한 고정되고 제한된 몇가지 박자들중에서 하나 또는 두가지 박자를 선택하여 그것으로 운률단위에 규칙적인 대응과 반복을 보장한다.

원수님의 사진은

언제 봐도 기뻐요

우리들이 어느때나

보고싶은 원수님

(동요 《보고싶은 원수님》)

파란 잎새 펼치여라

억센 아지 뻗치여라

땅엄마는 새싹에게

소곤소곤 속삭여요

(동요 《새싹의 마음》)

백두산밀영에 눈이 내리니

푸르른 밀림은 백포를 쓴듯

이깔도 분비도 차렷자세로

고향집 지켜선 초병의 모습

(동요 《백두밀림의 모습》)

우의 동요들은 4.3조, 4.4조, 6.5조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운율이 구성되어있다.

아동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요와 아동가사, 련으로 된 정형시들에서 하나 또는 두가지 박자로 운율을 조성하는것은 동요운율의 박자가 동시운율의 박자보다 단순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동시에 비한 동요운율구성의 특성은 다음으로 운율의 흐름새가 단조롭다는데 있다.

시에서 운율의 흐름새는 시행과 시행, 시련과 시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운율에 다양한 굴곡과 굴림새를 보장하여준다.

동요운율에서 흐름새의 단조성은 우선 운율의 굴곡이 동시보다 단조로운데서 나타난다.

시에서 운율의 굴곡은 먼저 시행과 시행들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시행이 시의 정서적기복으로 어떠한 굴곡을 반영함으로써 감정의 변화상태 및 계기를 표시해주는기때문이다.

대체로 동시들에서는 매 시행이 감정발전의 서로 다른 단계를 표시해준다. 그것들은 감정의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되면서 정서의 뚜렷한 단락을 형성한다. 그 단락을 타고 감정과 운율이 흐른다. 적지 않은 동시들에서는 시행들의 길고짧음의 차이가 심하다.

은빛실같은 버들가지에
참새가 딸랑딸랑
그네를 뛰네

바둑이
눈우에 덩굴더니
하얀 바둑이 되였네
(동시 《겨울은 좋아! 설날은 좋아!》)

이 동시에서는 시행들의 길고짧음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특히 두번째 련의 첫 시행은 한개의 시어로 구성되고있다. 운율의 굴곡은 바로 시의 정서적기복의 어떤 한 굴곡을 표현하는 시행들의 길고짧음의 차이에서 생겨난다.

동시에서 운율의 굴곡이 심하고 다양한것은 서정적주인공 즉 학생소년의 정서적령역이 어린이에 비해 넓고 사상감정이 자유분방하기때문이다.

정서적령역이 자유분방한 사상감정을 정형률적인 시행들에 담으면 운율적격식때문에 어떤 내용의 표현을 단념하거나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소년들의 자유분방한 사상감정을 노래하는 동시에서는 시의 다양한 정서적기복의 굴곡을 반영하여 시행들의 길고짧음의 차이가 심하며 따라서 운율의 굴곡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요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어린이는 학생소년들에 비하여 단순한 사상감정을 체험하며 따라서 그들의 정서적령역은 매우 협소하다. 그러므로 자유분방한 소년의 사상감정에 비해볼 때 어린이의 사상감정은 매우 단조롭고 명백하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시행들의 길고짧음의 차이가

심한 시보다 음절수가 동일하거나 류사한 시행들로 이루어진 시에 담는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동요들에서는 시행들의 음절수가 동일하거나 류사하기때문에 많은 경우 길고짧음에서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따라서 운률의 굴곡이 매우 완만하고 단조롭다.

가랑잎 하나
설게도 졌다
자기는 했지
갈 곳을 알리
바람이 불건
그리나 갈가
(동요 《가랑잎》)

달마중 갑시다
산으로 갑시다
설쇠고 첫 보름
달마중 갑시다
(동요 《달마중》)

이처럼 운률의 굴곡이 완만하고 단조로운 시형태가 동요의 기본비중을 차지하고있다는것은 동요운률의 굴곡이 동시운률의 굴곡보다 단조롭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동요운률에서 흐름새의 단조성은 또한 언어표현이 유순하고 평이한데서 나타난다.

동요에서는 한창 말과 글을 배워나가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될수록 쉬운 말과 표현을 쓰며 따라서 언어표현이 감성적이면서도 유순하고 평이하다.

유순하고 평이한 언어표현은 대체로 순한소리를 동반하게 된다. 어린이에게 까다로운 어휘와 표현은 많은 경우 거센소리, 된소리를 동반하게 되므로 동요에서는 될수록 피하여야 한다.

그냥 가긴 아쉬워
정말 아쉬워
부석하나 살짝
가지고갈가

아니아니 안되지 뭐
그건 안되지
백두산 돌인데
가져가면 안되지

그냥 가긴 아쉬워

정말 아쉬워
만병초 한송이
가지고갈까

아니아니 안되지 뭐
그건 안되지
백두산 꽃인데
가져가면 안되지

그냥 가진 아쉬워
정말 아쉬워
옳지 그래 애들아
모두 모여라

너도나도 사진 한장
찰칵 찍어서
백두산을 통채로
안고가자꾸나

(동요 《그냥 가진 아쉬워》)

이 동요의 말소리흐름새는 된소리, 거센소리가 별로없이 순한소리가 기본이 되어 규칙적으로, 룰동적으로 흐르고있다.

순한소리와 함께 랑랑한 소리가 많은것은 동요운률에서 흐름새의 단조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동요에서는 본딤말을 많이 리용하고있다. 본딤말은 소리나 모양을 생동하게 본따 랑랑한 소리를 돋구어주기때문에 동요에서 적극적으로 쓰인다.

형상적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자리에 적중한 본딤말들을 넣으면 시어를 산 시어로 만들고 시형상의 직관성과 정서를 높일수 있다. 이와 함께 본딤말들은 운률의 음악적흐름을 살리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면서 랑랑한 소리를 돋구어준다.

우리의 아동문학작가들은 동요운률구성의 특성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더 많은 동요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